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1 ‘신기촌 사람들’				
구술자명	조옥형	면담자	이경희, 이명순, 조영숙		
면담장소	주안7동 경로당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7월 11일	회차	1	시간	분 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66				
구술 개요	고향은 충청도로 74년에 인천에 옴. 주안7동 일대는 천막집, 신기촌은 10평짜리 집들이 있었음. 진흥요업에 빵을 납품하는 일을 함. 3지구 개발 당시 집을 마련함. 구획정리가 되며 화장터 자리로 길이 남. 76년경 통장제도가 생기며 통장직을 맡기도 함. 동네가 살기 좋아 이사 갈 생각이 없음.				
주요 색인어	주안, 충청도, 주안7동, 천막집, 신기촌, 10평, 진흥요업, 중앙도자기, 빵, 납품, 가구점, 문학초, 통장, 체비지, 판잣집, 돼지, 사료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주안 일대에 대한 기억			-		
- 42년생. 고향은 충청도로 74년에 일거리를 찾아 인천에 옴. - (주안7동) 일대는 전부 천막집이었음. - 신기촌은 68년도부터 10평짜리 집들이 지어짐.					
2. 진흥요업에 대한 기억					
- 진흥요업(중앙도자기)에 빵을 하루에 700~800개 납품함. 당시 진흥요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 - 진흥요업이 없어지면서 가구점을 운영함.			-		
3. 주안 일대에서의 삶			-		
- 3지구 개발 당시 체비지를 사서 빵 대리점과 집을 마련함. - 주안3동, 7동, 8동 일대를 3지구라고 함. 이 지역은 예전에 논밭이었는데 단독주택이 들어서게 됨. - 구획정리가 되면서 옛날 화장터 자리로도 길이 남. 화장터 일대에도 판잣집들이 있었음. - 자녀들은 문학초에 다녔음. - 76년경 통장제도가 생기면서 통장직을 맡기도 함. 당시 주민들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고 취로 사업을 하기도 함. - 주안8동에서 주민자치활동에도 참여함. - 판잣집 있던 자리에 안국아파트가 들어옴. 이후 우진아파트가 되었다가 그 두 개가 관교 한신아파트가 됨.					
4. 마무리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은 옛날이 있었지만 살기는 지금이 좋음.- 지금도 동네가 좋아 이사 갈 생각은 없음.- 통장이었을 당시 판잣집에서 많이 기르던 돼지 사료를 타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던 기억이 있음. | | |
|---|--|--|